

佛教建築計劃에 관한 研究

佛殿의 機能

金正秀 (延世大學校 産業大學院長)

佛殿의 機能

佛殿이라 함은 信仰의 對象이 되는 佛像을 安置한 殿閣을 말하며 僧侶의 日常居處인 僧房, 禪堂等은 包含하지 않는다.

佛殿의 名稱은 前記한 바와 같이 大雄殿을 爲始하여 各種 佛殿이 있으며 其中에는 一般佛寺에서는 흔히 볼수 없는 特殊 名稱의 佛殿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그 寺刹의 伝說 其他 特殊한 由來에 基因하는 境遇가 많다. 大部分의 寺刹 大雄殿에는 釋迦 三尊佛을 安置하는 것이 慣例지만 間或 極樂殿에 安置하는 阿彌陀 三尊佛을 安置하고 大雄殿이라 한 境遇도 있다. (列: 梵魚寺 및 長端 華藏寺 大雄殿)

그 밖에도 佛殿名과 佛像名이 一致하지 않든가 또는 佛像數가 慣例를 벗어나는 境遇等이 많은데 其原因으로서 他佛殿이 火災 또는 破損으로 佛像을 移轉한 境遇로서 寧邊 普賢寺等의 例를 볼 수 있다. 또한 海印寺 大寂光殿에는 毘盧舍那佛이 二種있는데 그 原因은 隣近 廢寺에서 佛像을 옮겨 온데서 基因하며,⁽³⁸⁾ 이러한 例가 오랜 時日이 經過하고 보면 佛殿內에 佛像의 種類, 數가 非正常的인 原因이 됨을 알 수 있다.

佛殿에는 各 寺刹의 經濟의 事情으로 佛像을 安置할 수가 없어서 幀畫로 代置하는 境遇는 흔히 볼 수 있으며 特히 神閣等의 境遇 및 第二次的 佛殿에 있어서 많은 例를 볼 수 있다. 또한 寺刹에 따라서는 本尊佛만을 獨立佛像으로 安置하고 協侍佛은 幀畫로 代置하는가 或은 本尊佛까지 合쳐서 全部를 幀畫로 代置한 境遇도 많다.

이러한 佛壇은 幀畫를 佛像으로 取扱하여 佛壇을 設置하고 佛壇에 촛대, 香爐等의 祭具를 올려 놓고 있다. 이러한 用途에 쓰이는 幀畫로서 地藏殿의 地藏幀, 觀

音殿, 觀音幀, 極樂殿의 彌陀幀, 各 神閣을 代表하는 獨聖幀, 山神幀, 七星幀 등이 그 例라 할 수 있다.

寺刹의 主佛殿은 一般的으로 大雄殿이지마는, 寺刹에 따라서는 極樂殿, 觀音殿, 藥師殿, 大寂光殿, 彌勤殿等을 主佛殿으로 하는 寺刹도 相當한 數에 달한다 하는것을 主佛殿統計表(第1表)로서 알 수 있다.

〈第1表 主佛殿(金堂) 名稱의 統計〉

§ 大雄殿이 主佛殿인 寺刹

水原	龍殊寺	高城	乾鳳寺	麟蹄	百潭寺	포항	宝境寺
壤陽	神興寺	公州	麻谷寺	義城	狐雲寺	楊州	奉先寺
報恩	法住寺	梁山	通度寺	江華	傳燈寺	永川	銀海寺
昇州	松廣寺	求禮	華嚴寺	達城	桐華寺	寧恩	普賢寺
安邊	釋王寺	全州	松廣寺	禮山	修德寺	安東	鳳亭寺
和陽	雙峯寺	영암	道岬寺	河東	쌍계사	瑞山	開心寺
昌寧	觀龍寺	醴泉	龍門寺	青陽	長谷寺	慶州	佛國寺
서울	曹溪寺	서울	靑龍寺	서울	華溪寺	蔚山	白楊寺
固城	雲興寺	東萊	摩訶寺	蔚州	石南寺	서울	靑蓮寺
東萊	法輪寺	金海	銀河寺	서울	慶國寺	泗川	多率寺
서울	開運寺	광주	奉恩寺	高城	楡岾寺		

§ 極樂殿(無量壽殿)이 主佛殿인 寺刹

康津	無爲寺	扶餘	無量寺	榮州	浮石寺	南原	実相寺
忠武	龍華寺	서울	永華寺	서울	大門寺	서울	彌陀寺
求禮	泉隱寺						

§ 觀音殿(円通殿)이 主佛殿인 寺刹

昌原	義林寺	忠武	觀音寺	襄陽	洛山寺
----	-----	----	-----	----	-----

(38) 金東列. 海印寺史蹟(晉州, 嶺南文學會 1959)

§ 藥師殿(滿月寶殿)이 主佛殿인 寺刹

서울	白蓮寺	서울	奉國寺
----	-----	----	-----

§ 大寂光殿(昆盧殿)이 主佛殿인 寺刹

陝川	海仁寺	金堤	金山寺	月城	砥林寺
----	-----	----	-----	----	-----

(1) 大雄殿

佛寺 全體의 主佛殿인 舍堂에 該當하며, 娑婆 世界의 釋迦牟尼 계신곳을 나타낸다.³⁹⁾ 一般的으로 大雄殿建物은 寺刹 全體建物中에서 가장 雄壯하고 壯嚴하게 大規模로 建築하는 것이 慣例 이지만, 初創當時의 經濟的 事情이 좋지 못하였다가 後에 好轉하여 追後에 建築한 2次的 佛殿이 더 커지고 反對로 大雄殿이 小規模로 殘存해 있는 例도 없지 않다. (例. 求禮 華嚴寺, 義城 孤雲寺)

○構造

大雄殿의 建築構造는 全國的 44개소의 寺刹을 統計(第 2表)한 것에 따르면 正面 3間, 側面 3間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2位가 正面 5間, 側面 3間, 3位가 正面 5間 側面 4間의 順이다.

〈第 2表 大雄殿의 規模

正 面		側 面		面 積 平 均		佛殿數
間數	平均長(m)	間數	平均長(m)	m ²	坪	
3	12.8	3	10.59	135.55	41.07	18
5	14.58	3	9.91	144.5	43.78	7
5	17.38	4	11.57	201.0	60.90	6
3	11.29	2	6.82	77	23.33	6
4	14.03	3	10.67	149.7	45.36	2
7	31	4	17	527.0	159.69	2
5	15.27	5	13.82	211.03	63.94	1
3	6.1	1	3.93	23.97	7.26	1
1	3.96	1	3.96	15.68	4.79	1
合計						44

大雄殿의 지붕 構造는 全體 24個 大雄殿 調査中 8作 지붕이 18개소이며 其他 양식은 맞배지붕이 8개소인 것으로 보아 大部分의 大雄殿이 8作 内部 4出目 外部 3出目的 多包 形式이고 大雄殿 建物은 中段 中庭보다 階段을 7段 内外 높혀서 上段에 大雄殿이 놓일 地盤을 構成함을 統計로 알 수 있다.

大雄殿 室内은 우물받자를 설치하고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며 門은 正面 3間에 쌍박여단이 접문을 設置하되 문살모양의 形式은, 交箭門, 細箭門, 井字箭門 등이 주로 쓰이며 間或 花箭門 기타 上記의 混合型도 使用例를 統計 結果로 알 수 있다.

○仏壇配置

佛壇의 配置는 中央后面 左右 内陳기둥에 기대어 主

³⁹⁾ 한국불교연구원, 불국사(서울, 一志社 1974) p. 29

佛壇을 設置하며 左右 兩側 壁面에 붙여서 ㄱ字型 또는 T字型의 副祭壇을 設置하되 一般的으로 右側은 神衆壇 左側을 靈壇으로 하고 寺刹內에 神閣및 佛殿이 不足한 小規模 寺刹에서는 大雄殿內에 七星壇, 獨聖壇, 地藏壇 靈山壇등을 設置하여, 佛殿建築費를 節約한 특수한 例도 많다.

主佛壇(須彌壇)

主佛壇은 佛像이 石刻 또는 鐵刻 等の 重量物일 경우에는 佛像을 설치하기 위한 柱礎石을 建物과 獨立하여 別途로 設置하고 그 위에 蓮花무늬의 石刻 佛台座를 設置하고 그 앞에 2段 乃至 3段으로 된 須彌壇으로 앞을 가리워 설치한다. 佛像이 木造物등의 輕量物일 때에는 佛壇 最上部 石板 部分에 널을 깔고 佛像을 安置하기도 한다. 須彌壇의 前面 넓이는 기둥사이 간격으로 하고 높이는 最上段이 사람이 서서 보이지 않을 程度의 높이인 1.6m 깊이 2.36m가 平均值이며(第 4表) 앞에서 보이는 壁部分은 어긋난 格子型으로 하여 格間에 조각 眠像을 새긴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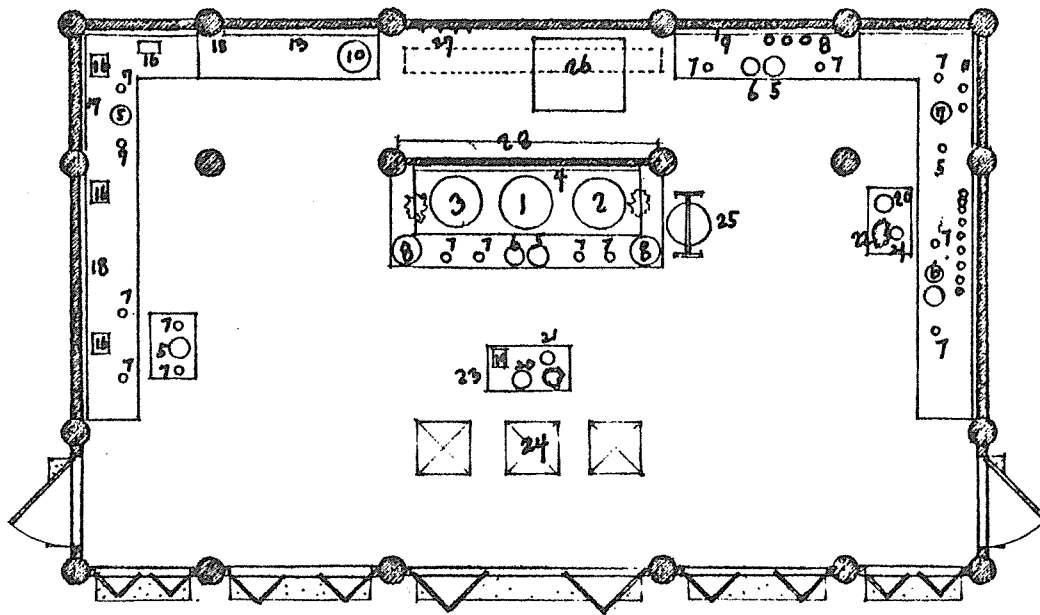
佛像上部는 加一層 장엄감을 주기 위하여 裝飾的인 天蓋(寶蓋天障)을 本建物天障과 別途로 製作하여 매달고 그 속에 구름이나 용모양의 木刻 板物을 줄로 매달아 늘어 놓기도 한다. 階段形 各段의 높이는 30cm, 段의 넓이는 39cm가 平均이다. 主佛壇에 安置하는 佛像및 佛具는 21種의 寺刹을 現地踏查 또는 寺誌및 寺刹財産 台帳⁽⁴²⁾을 통하여 調査한 統計를 集計하면은 다음과 같으며(第 3表) 中央에 釋迦三尊佛을 安置하되 左右 補處를 大勢至, 觀世音으로 한 경우가 가장 많으며, 次位로 文殊, 普賢兩菩薩像으로한 例를 많이 볼 수 있다.

特殊한 例로서는 阿彌陀 및 彌勒을 主佛로 한 경우도 있고 通度寺와 같이 舍利塔 뿐이고 전혀 無佛인 特殊例도 있다.

〈第 3表〉 大雄殿 佛像 統計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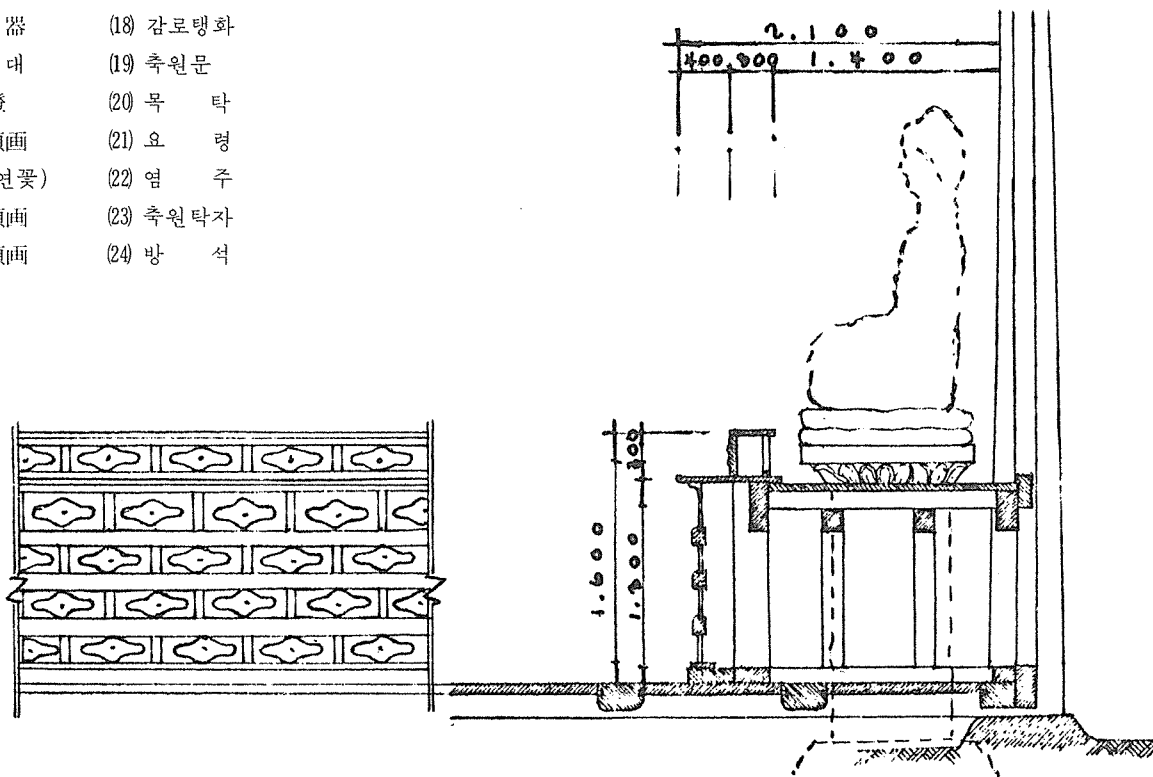
主佛	左右補處	寺刹數	備考
釋迦	大勢至, 觀音	5	一般
"	文殊, 普賢	3	"
"	阿彌陀, 藥師	2	
"	彌勒, 羯羅	2	
"	觀音, 地藏	1	特殊
阿彌陀	大勢至, 觀音	2	極樂殿에 해당함
"	釋迦, 觀音	1	
昆盧	慮舍邦, 釋迦	2	昆盧殿에 해당함
釋迦	無補處	1	孤雲寺
"	彌勒, 羯羅, 阿難, 加葉	1	佛國寺
舍利塔	無佛	1	通度寺
合計		21	

⁽⁴²⁾ 朝鮮寺刹 財産台帳 目錄上, 下 (延大 圖書館藏, 發行者未詳)



第1圖 規模가 큰 大雄殿

- | | |
|--------------|-----------|
| (1) 석가모니불 | (13) 가사탱화 |
| (2) 아미타불 | (14) 현왕탱화 |
| (3) 대세지보살 | (15) 위패대 |
| (4) 後佛幀画 | (16) 연좌 |
| (5) 香爐 | (17) 감로탱화 |
| (6) 茶器 | (18) 감로탱화 |
| (7) 촛대 | (19) 축원문 |
| (8) 電氣燈 | (20) 목탁 |
| (9) 七星幀画 | (21) 요령 |
| (10) 꽃병 (연꽃) | (22) 염주 |
| (11) 神衆幀画 | (23) 축원탁자 |
| (12) 神衆幀画 | (24) 방석 |



第2圖 主佛壇

三尊佛 後面壁에는 一般的으로 壁全面을 덮을 수 있는 幀畵를 걸고 須彌壇에는 小型香爐를 為始한 五具足を 備置한다.

○副祭壇(神衆壇, 靈壇)

높이 75cm 깊이 70cm 内外로 한 例가 가장 많으며 兩側壁 길이에 맞추어 設置하되 段은 普通 三단하나 뿐이다. 右側을 神衆壇으로 하여 後壁에 神衆幀畵를 걸고 祭壇上에는 5具足を 備置한다. 左側 靈壇에는 位牌를 安置하고 5具足を 設置하며, 그 밖에 七星壇, 獨聖壇, 地藏壇 등을 設置할 때에도 神衆壇의 境遇와 한 가지로 各 各 七星幀, 獨聖幀, 地藏幀을 後壁에 부치고 그 앞에 5具足を 장만한다.

佛国寺에 있어서는 應眞殿이 없으므로 大雄殿 右側에 副祭壇에 釋迦三尊佛과 16羅漢佛像을 安置하여 應眞殿의 役割을 하게한 特殊한 例라 하겠다.

佛壇以外部分에는 主佛壇 앞에 法床, 經床, 방석 등의 祝願用佛具가 安置되며, 木鐸搖鈴 등의 佛具를 올려 놓으며 大雄殿 前方 左隅등에 中型大鼓, 半鍾등을 設置한다.

韓國에서 가장 實例를 많이 볼 수 있는 兩面 3間의 大雄殿 佛壇의 平面및 外觀은 達城 桐華寺를 其例로 들었으며 (第77圖) 参照 規模가 큰 大雄殿의 例는 서울 靑龍寺 大雄殿 佛殿配置 (第78도 참조)에서 볼 수 있다. 一般 主佛壇의 断面및 寸수는 (第79圖)에 表示한다. (第4表)는 大雄殿 各佛壇 寸수의 統計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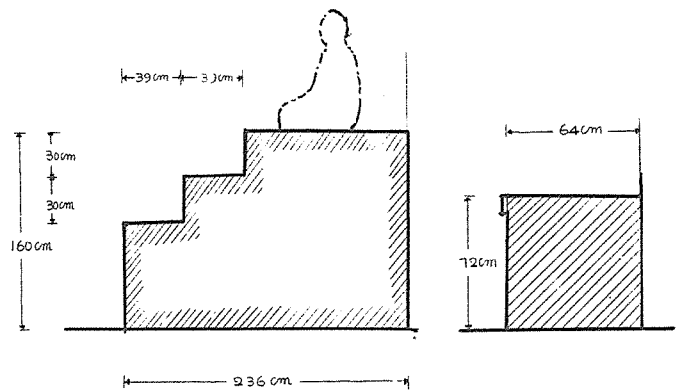
〈第4表〉 大雄殿 佛壇 一覽表

段數	主佛壇		神像段			佛殿名
	全体高 (cm)	全体巾 (cm)	段數	全体高 (cm)	全体巾 (cm)	
4	208cm	277cm	1	75cm	68cm	梵魚寺大雄殿
3	158	164	1	69	35	華溪寺 "
2	150	305	1	75	73	雙溪寺 "
4	221	357	1	84	80	通度寺 "
3	141	253	없음			法輪寺主佛壇
3	156	210	1	68	64	宝境寺大雄殿
2	128	131	1	76	80	靑龍寺 "
2	108	126	1	84	86	孤雲寺 "
2	170	260	1	90	84	佛国寺 "
3	161	267	1	94	74	桐華寺 "
3	160	236	1	72	64	(平均值)

(2)冥府殿(地藏殿, 十王殿)

冥府라 함은 죽은 靈魂의 終着처이며, 無量苦에 빠진 者를 건지고 地獄門을 出入하는 地藏菩薩을 主佛로 安置하는 佛殿이며 天上에서 地獄에 이르기까지의 6가

지 形態의 存在 즉 人間, 天, 阿修羅, 餓鬼, 畜生, 地獄 등의 존재를 하나 하나 教化시켜 成佛시키는 役割을 함으로 救援의 理想을 表現하는 佛이라고 한다. 그 밖에 死後 地獄에서 審判을 하여 罪의 輕重을 가리는 閻羅王을 為始한 진광, 초강, 송례, 오관 변성, 태산, 평등, 도시 오도전륜 등의 十大王의 佛像도 安置되므로 十王殿 또는 地藏殿등으로 불리우며 韓國内 大部分의 寺刹이 이러한 冥府殿을 갖고있다.



大雄殿 主佛壇

大雄殿 神衆壇

○ 建築構造

冥府殿의 크기는 正面 3間(7.82m) 側面 2間(6.02m)이며 面積은 47m² (14.27坪)의 例가 가장 많음을 統計를 集計한 結果로 알 수 있으며, 이보다 적은 例는 宝境寺의 正面 3間 側面 1間的 8.2坪이고 가장 큰 例는 華巖寺 冥府殿이 7間 5間으로서 23.6坪이다. 지붕 形式은 大部分 맞배지붕이고 包作 樣式도 寺刹에 따라 多包柱心包, 翼工, 도리집 등 多樣하되 大體로 大雄殿보다 簡單한 樣式을 扞하고 있다.

室內 마무리는 大概 우물반자, 우물마루이고 正面 3間에는 各間마다 쌍 여단이 접문 出入口를 設置하되 문살 樣式은 細箭門, 井字箭門 등이 많이 使用되고 있다.

○ 佛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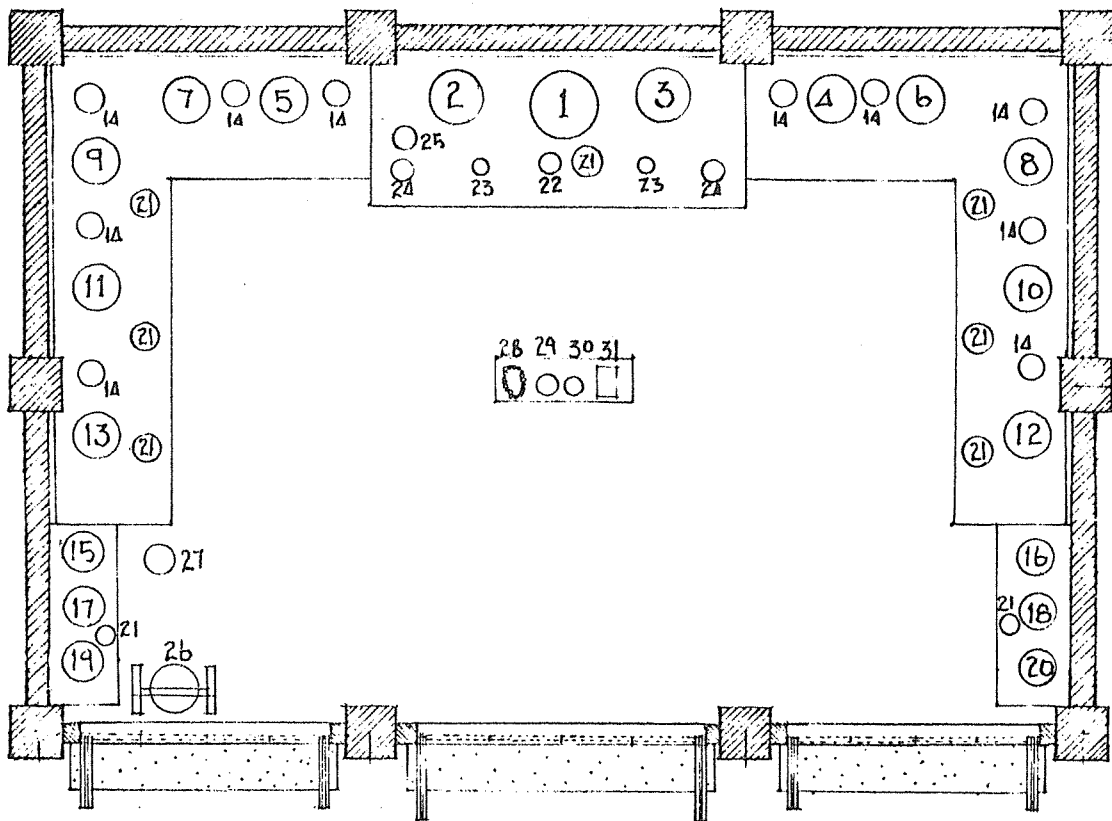
冥府殿의 佛壇 形式은 어느 寺刹이나 大概 그 平面 配置 形式 및 佛像의 數가 一定하다. 佛壇은 主佛인 地藏菩薩을 中央 主佛壇에 安置하고 左, 道明尊者, 右, 無毒鬼王의 兩補處를 配置하며 十大王을 左右에 各各 5位를 對稱으로 順次的으로 配置하되 使者 4位, 2判官, 2將軍 2鬼王像을 2等分하여 左右對稱으로 各各 配置한다. 各



寅府殿 主佛 地藏菩薩과 左右補処



冥府殿의 十大王과 童子像



冥府殿 佛壇配置

- | | | | |
|------------|--------------|----------|------------|
| 1. 地藏 菩薩 | 9. 第6 變成大王 | 17. 日直使者 | 25. 花 盆 |
| 2. 무독귀 王 | 10. 第7 泰山大王 | 18. 月直使者 | 26. 中 鐘 |
| 3. 도명 존자 | 11. 第8 平等大王 | 19. 걸왕신 | 27. 消火器 |
| 4. 第1 泰廣大王 | 12. 第9 都市大王 | 20. 걸왕신 | 28. 염 주 |
| 5. 第2 初江大王 | 13. 第10 殿輪大王 | 21. 香 爐 | 29. 목 탁 |
| 6. 第3 宋帝大王 | 14. 童 子 | 22. 茶 器 | 30. 요 명 |
| 7. 第4 王官大王 | 15. 日判官 | 23. 솟 대 | 31. 영 가축원문 |
| 8. 第5 閻大王 | 16. 月判官 | 24. 祝願燈 | |

第3圖 冥府殿의 佛壇과 配置

서울 靑龍寺

大王과 大王 사이는 童子의 小佛像은 總 10位를 設置하되 大王以外的 佛像의 種類와 數는 寺刹에 따라 多少 增減이 있음을 免할 수 없다.

十大王像은 普通 의차에 앉고 其他 眷屬 神은 大部分 立像이다. 各佛像 後面에는 3面壁에 後佛 幀画가 걸려 있음은 他 佛殿의 境遇와 同一하다 하겠다.

第3 圖는 서울 靑龍寺 冥府殿의 佛壇配置 및 外觀이다.

(3) 應眞殿 (羅漢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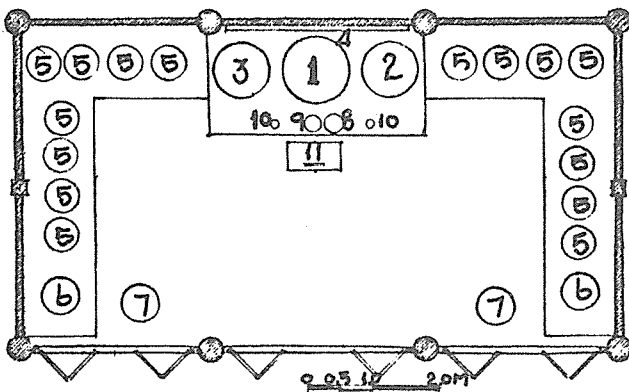
釋迦牟尼의 16大 弟子를 모시는 佛殿이며 韓國內 寺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佛殿이다. 我執 煩惱를 끊고 生死를 超越한 聖者를 應眞, 無學, 應供 羅漢이라 하므로 應眞殿을 羅漢殿, 16羅漢殿 등으로 불리운다.

○ 建築 構造

應眞殿의 크기는 正面 3間(6.9m) 側面 2間(4.1m)의 크기가 가장 實例가 많으며 이때의 面積은 28.3m²(8.5坪)이다. 次位로 實例가 많은 것은 兩面 共히 3間的 境遇이고, 간혹 큰 例는 5間 3間 또는 5間 2間이며 銀海寺의 7間 3間은 특별히 큰 例라 할 수 있고 桐華寺의 3間 1間은 가장 적은 便이라 할 수 있다.

包作은 内外 2出目 多包의 例가 많고 기타 柱心包, 翼工, 도리집 等の 例도 있다. 지붕 形式은 大部分 맞배 지붕이고 간혹 8作도 볼 수 있다.

室內 나무리는 우물 반자, 우물 마루이며, 간혹 돛자리(다다미)를 깐 例도 볼 수 있다. (例 釜山 梵魚寺, 梁山 通道寺, 桐華寺) 正面 出入口는 前面 3間 全体에 걸쳐 3個所에 밖여단이 접문을 設置하되 간혹 때에 따라서는 左 또는 右側 앞쪽에 외여단이 出入口를 設置하기도 한다. 門의 形式은 大概 細箭門, 交箭門, 井字箭門 등이 쓰여 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雙溪寺 應眞殿 佛壇配置圖

- | | |
|-----------|---------|
| 1. 釋迦牟尼佛 | 6. 梵天王 |
| 2. 提花迦羅菩薩 | 7. 帝釋天王 |
| 3. 彌勒菩薩 | 8. 香爐 |
| 4. 後佛幀画 | 9. 燭 |
| 5. 16羅漢 | 10. 喜捨函 |

第4 圖 應眞殿의 佛壇

(5) 崔應觀, 雪峰山 釋王寺 略誌(釋王寺, 1934)

○ 佛壇配置

各 寺刹마다 應眞殿 佛壇配置는 大体로 一定하며 그 形式은 冥府殿의 경우와 大同小異하여 主佛壇을 中心으로 左右에 對稱으로 丁字 또는 1字型의 副祭壇이 兩側 및 後面壁에 걸쳐서 壁에 부쳐 設置한다.

佛像 配置는 主佛壇에 釋迦 三掌佛(左補處 彌勒菩薩 右神處 提花迦羅菩薩을) 安置하며 副祭壇에는 16羅漢像을 左右에 8位씩 等分하여 配置하되 寺刹에 따라서는 이 밖에 大梵天王, 帝釋天王, 監齊使者, 直符使者, 2童子像을 追加하여, 左右에 對稱으로 分割 安置하기도 한다. 主佛壇에는 五具足 기타 佛具가 設置되며, 佛壇 치수 等은 冥府殿에 準한다. 間或 應眞殿 内部에 上記 佛像 以外에 五百 羅漢像이 安置된 때도 있으나(例 柢林寺 應眞殿 長湍 華藏寺 應眞殿) 이러한 것은 五百 聖像殿에 속한다 할 수 있다.

應眞殿 佛壇 配置는 (第4 圖)를 參照

(4) 極樂殿 (無量壽殿, 普光殿)

阿彌陀經 및 無量壽經을 根拠로 하여 阿彌陀佛을 主佛로 安置하는 極樂殿은 極樂 世界를 像徵한다. 따라서 極樂殿을 無量壽殿이라고도 부른다.

其他 名稱으로서는 普光殿(南原 實相寺, 禮泉 龍門寺 忠武 龍華寺)가 있으며 特殊 名稱을 가진 것은 安迎 釋王寺의 海藏殿⁽⁶⁾ 公州 奉恩寺의 安養殿, 高城 楡岾寺의 蓮花社⁽³⁾ 等の 名칭을 使用하여 阿彌陀 三尊佛 또는 阿彌陀 主佛을 安置하고 있으나 이러한 名稱을 使用하게 된 由來는 確實치 않다.

前記한 釜山 梵魚寺, 長湍 華藏寺에서는 大雄殿 內에 阿彌陀 三尊佛을 모신 例도 있다.

○ 建築 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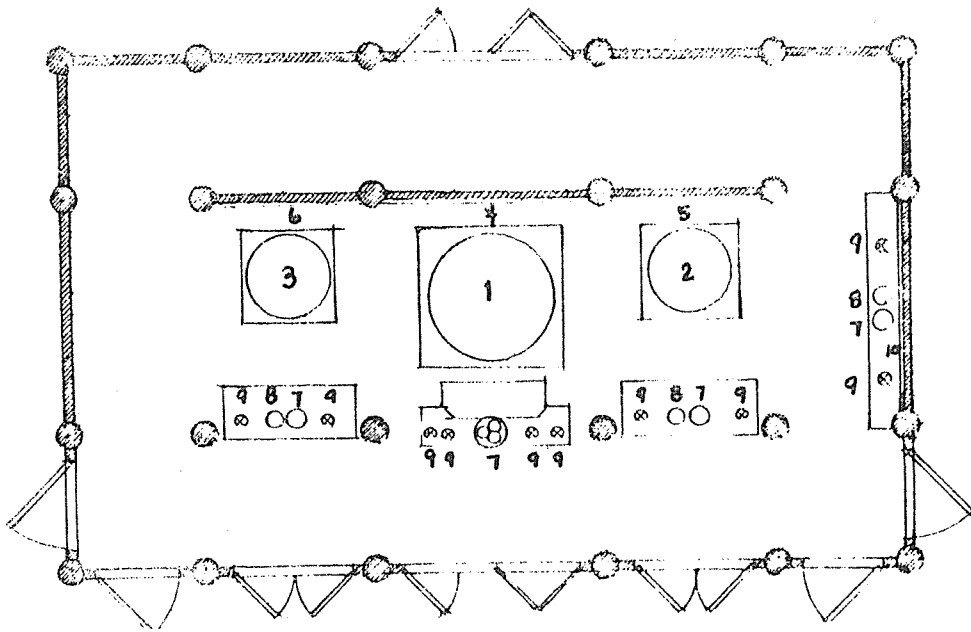
佛殿의 規模는 正面 3間(9.5m) 側面 3間(7.3m)의 例가 가장 많으며 그 面積은 69.4m²(21坪)이다. 次位로 實例가 많은 것이 正面 3間 側面 2間이고 3位가 正面 5間 側面 3間的 境遇이다.

極樂殿의 包作 形式은 内外 2出目 程度의 包作이며 間或 柱心包, 翼工 等도 있으며, 지붕은 8作과 맞배지붕이 半半程度라 할 수 있다. 室內 나무리는 集計를 보면 우물반자, 우물마루이며 出入門은 前面 柱間은 全部 열 수 있도록 門을 해 달되 밖 여단이 접문으로 하고, 앞쪽 左右 壁에도 외 여단이 문을 달아 出入할 수 있게하고 있다. 門의 模樣은 交箭門이 가장 例가 많으며 井字箭門 및 細箭門도 간혹 볼 수 있다.

○ 佛壇

정면에 主佛壇을 설치하고 右側壁에 붙여서 神衆壇 右側 後壁에 靈壇을 둔 例가 많으며, 主佛壇은 大雄殿에 準하여 須彌壇을 設置하고 阿彌陀 三尊佛을 安置하되 主佛은 阿彌陀佛이고 左右補處는 例外없이 大部分의 寺刹이 左補處 大勢至菩薩 右補處 觀世音菩薩이다. 佛壇

(3) 金坦月, 楡岾寺 本末寺誌(高城 楡岾寺 宗務戶, 1942)



1. 阿彌陀佛
2. 觀世音菩薩
3. 大勢至菩薩
4. 後佛幀画
5. 觀世音菩薩幀画
6. 大勢至菩薩
7. 香 爐
8. 茶 器
9. 춧 대
10. 神衆幀画

第5圖 桐華寺 極樂殿 佛壇 配置圖



義城狐雲寺 極樂殿 阿彌陀 三尊佛

第6圖 極樂殿의 佛壇

後壁에 後佛 幀画를 設置함은 매 한가지이며 神像壇에는 神像幀画를 걸고 靈壇에는 位牌를 安置하며 各 佛壇에는 五具足 其他의 佛具가 놓인다.

[第5圖]는 極樂殿의 例로서 三尊佛의 佛壇을 하나 別途로 設置한 達成 桐華寺 極樂殿의 佛壇 配置 例이다. (第6圖)

(5) 觀音殿 (円通殿)

觀音殿은 觀世音菩薩을 安置하는 佛殿이며 觀音菩薩은 一名 圓通大士로도 불리우며 觀音殿을 円通殿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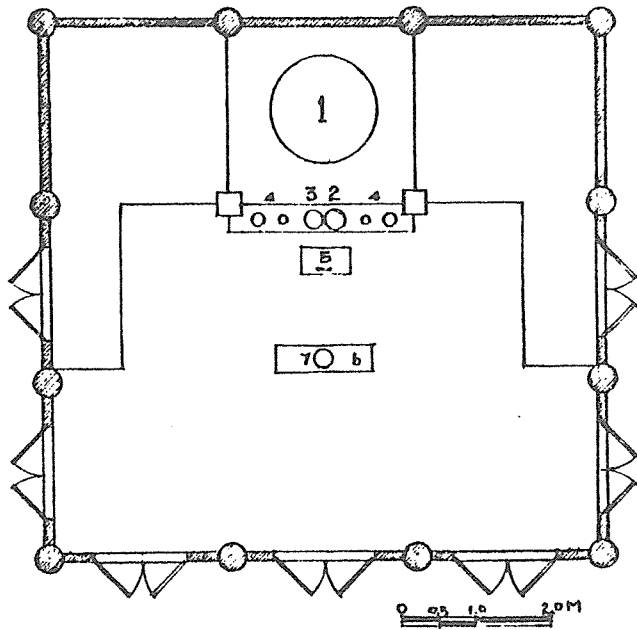
觀世音 普門品經에

若有無量百千萬億衆生 受諸苦惱
聞是觀世音菩薩 一心稱名 觀世音菩薩
即時觀其音聲 皆得解脫

많은 千萬億의 衆生이 갖가지 괴로움을 當할 時에 觀世音菩薩의 이름을 眞心으로 부르면 觀音菩薩은 即時 그 音聲을 듣고 모든 苦惱를 解脫시켜 준다 하였으니 觀音은 大慈大悲의 菩薩이다. 觀音 佛像은 普通 右手에 紅蓮花를 잡고 左手에 병을 들고 있으므로 佛像 判斷이 容易할 뿐 아니라 이 菩薩은 變身을 잘 하므로 千手觀音, 11面觀音, 馬頭觀音을 爲始하여 많은 觀音像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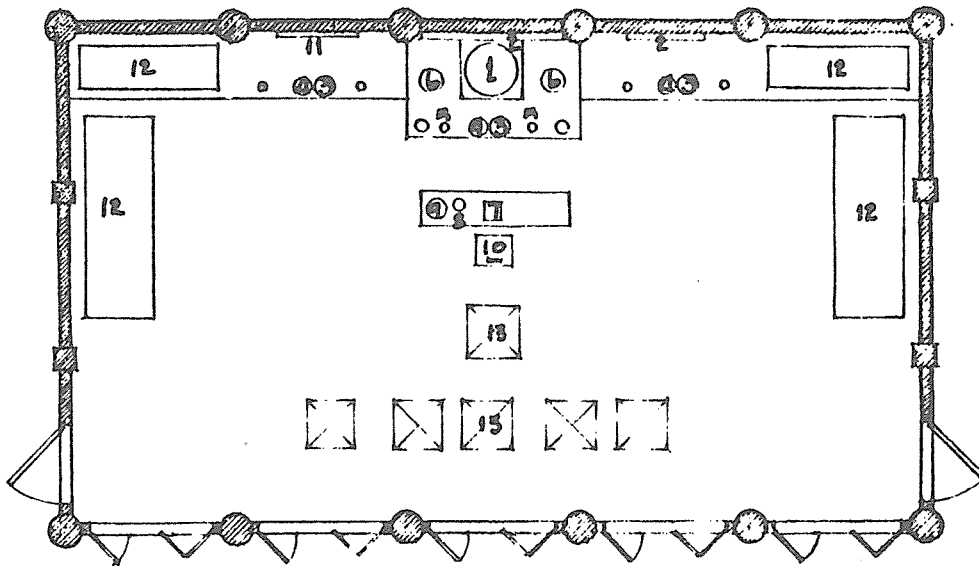
○ 建築 構造

正面 3間(7.6m) 側面 3間(7m) 面積 53.2m (16.1坪)의 경우가 가장 實例가 많으며 그 다음이 正面 3間 側面 2間, 3位가 正面 5間 側面 3間的 順임을 統計로 알 수 있다. 包作 形式은 柱心包 또는 翼工집이 많으며 간혹 内外 2出目 5包作 等의 實例를 볼 수 있고 지붕은 맞배 또는 8作이며 室內 마감 및 出入門의 形



1. 觀世音菩薩
2. 香 爐
3. 茶 器
4. 촛 대
5. 喜捨函
6. 祝願卓子
7. 목 탁

通道寺 觀音殿 佛壇配置圖



1. 觀世音菩薩
2. 觀音幀画
3. 香 爐
4. 茶 器
5. 촛 대
6. 花 瓶
7. 祝願文
8. 요 명
9. 목 탁
10. 喜捨函
11. 神衆幀画
12. 經 藏
13. 방 석

觀音殿 佛壇配置圖

式은 前記 一般 佛殿과 大同小異하다.

○ 佛 壇

觀音殿에 安置하는 佛像은 불자독송집에는⁶⁸⁾ 主佛이 觀世音菩薩이고 左補處南巡童子 右補處海上王龍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例를 아직 筆者는 볼 수 없고 大部分 主佛壇에는 觀世音單獨佛像 만이 安置되어 있다.

새로 新築한 佛國寺 觀音殿에는 石刻 觀音立像이 須彌壇上에 安置되고 室內 左側에 半鍾이 하나 있을 뿐이고 後佛幀画까지도 없으며, 須彌壇은 2段으로 되어 前面 보이는 곳은 現代式 木浮刻으로 裝飾하고 있다. (第7圖)

釜山 梵魚寺 觀音殿은 가장 規模가 큰 完備한 形態라 할 수 있으며 後面壁에 붙여 主佛壇을 設置하고 그 左側

⁶⁸⁾ 通道寺 略誌(梁山 通道寺 發行, 1969)

後壁에 붙여서 全部를 副祭壇으로 하여 左側에 神像壇 右側에 觀音壇을 設置하고 各各 神像幀 및 觀音幀을 後壁에 걸고있다. 其他 殘餘 部分 및 左右 壁面은 經藏으로 使用하고 主佛壇 앞에는 祝願卓子 및 喜捨箱이 設置되어 있다. 佛壇 配置는 (第8圖)와 같다. 寺刹에 따라서는 七星壇, 山神壇, 獨聖壇 等도 아울러 設置함을 볼 수 있다.

(6) 藥 師 殿

藥師琉璃光如來를 主佛로 安置하는 佛殿이며 藥師如來 本願經의 內容에 따르면 東方의 많은 世界를 지나가서 琉璃世界가 되며 藥師如來는 그 教主이고 壯巖한 宮殿으로서 女子가 없고 罪惡苦痛이 없는 淸淨한 極樂이라 한다.

藥師信仰은 A. D 742年 新羅 大賢法師가 唐에서 導入하였으며 藥師如來를 禮拜하면 願을 이루고 健康福德長壽하여 男女를 구할 수 있고 無病하고 安産할 수 있으며 子息은 聰明하다고 한다.⁽⁶⁾

藥師如來의 守門將으로 12神將(12夜叉大將)이 있고 그 밑에 7千夜叉가 있다 한다. 이러한 祈福信仰은 其後 널리 퍼져서 貞陵의 藥師庵, 靈泉의 白蓮寺等 藥師佛을 主佛로 하는 佛寺가 全國의으로 100以上에 達한다고 한다. 楡岾寺의 水月社는 安置된 佛像으로 判斷하여 藥師殿의 異名으로 解釋된다.

○建築 構造

正面 3間 側面 2間 또는 正面 3間 側面 1間的 实例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그 面積의 平均値는 正面 5.9m 側面 4.3m 面積 27.5m²(8.3坪)이다. 지붕은 대개 맞배 지붕으로서 多包, 柱心包, 翼工等 各種 包作形式을 取하고 있다. 室内는 우물받자, 우물마루이나, 간혹 돛자리 또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改造한 경우도 볼 수 있다. 出入口等 位置, 形式等은 一般 佛殿樣式에 準한다.

○佛壇配置

主佛壇을 中心으로 左右 壁에 붙여서 副祭壇을 設置하되 主佛壇에는 主佛藥師如來와 左補處 日光遍照 消災菩薩 右補處 日光 遍照息災菩薩을 安置하며 佛壇 前面에는 喜捨箱을 設置하고 副祭壇에는 獨聖壇, 七星壇, 山神壇等을 두며 佛具 其他는 一般 佛殿樣式에 準한다.

(第9圖)는 月城 柢林寺 藥師殿의 佛壇 配置實測圖 및 主佛壇 外觀이다.

(7) 毘盧殿(大寂光殿, 大光明殿)

華嚴經을 근거로 하는 毘盧遮那佛(一名 大日如來)을 主佛로 모시는 佛殿이다. 毘盧遮那佛은 大寂光王에 있으면서 華嚴을 항상 說했다 하여 大寂光殿이라고도 불리우며 빛을 發하여 어둠을 쫓고 眞理를 상징하는 蓮華藏世界의 佛殿이다. 毘盧遮那佛身에는 法·報·化의 다음과 같은 三身이 있다.

法身—毘盧遮那佛이며 宇宙의 眞理 또는 眞如體性을 의미함.

報身—盧遮那佛이며 知慧의 身으로서 靜的 方面을 의미함.

化身—釋迦牟尼佛이며 教化의 身이고 動的 方面을 意味함.

毘盧遮那佛像은 密敎 以後는 恒常 智拳印像의 結印을 하고 있음으로 外觀으로 보아 即時 毘盧遮那佛임을 판단하기가 용이하다.

○建築構造: 陝川 海印寺, 金提 金山寺, 月城 柢林寺等은 大寂 殿을 主佛殿으로 하고 있으며 其他 寺刹에서 도 毘盧殿의 規模는 一般의으로 큰 것을 많이 볼 수 있으며 統計表를 集計하여 보면 正面 5間 側面 3間的 例

가 많으며 다음으로 3間×3間이 많고 그밖에도 3間×2間, 7間×4間 等の 例가 있다. 平均하면 正面길이 13.6m, 側面 10.8m, 面積 159.5m²(8.2坪)이다.

包作은 外 3出目 內 2出目內外의 多包 8作 또는 맞배 지붕을 하고 있다. 室内는 우물마루, 우물받자로서 돛자리(다다미)로 한 경우도 많으며 門 기타 一般 佛殿에 準한다.

○佛壇配置: 梵魚寺·佛國寺·宝境寺 等の 경우는 大體로 간단하게 처리되어 室内中央에 主佛壇을 설치하고 毘盧遮那三尊佛(左補處 釋迦 右補處 盧遮那)을 안치하며 간혹 後佛幀畫가 없는 例도 있다. 桐華寺는 補處가 없는 毘盧遮那單佛像을 안치하고 神衆壇과 靈壇을 장만하고 있다. 가장 代表的이라 할 수 있는 것은 柢林寺의 大寂光殿으로서 中央 主佛壇에 毘盧遮那三尊佛을 안치하고 大雄殿에 準하여 左右 兩側壁에 부처서 神衆壇과 靈壇을 設置하였으며 佛具·佛壇構造 等은 一般佛殿에 準하되 左側後方에 大鼓, 前方에 半鍾이 놓여 있으며 기타 상세한 것은 (第10圖)와 같다.

海印寺 大寂光殿의 佛像은 廢寺 星州 金塘寺의 佛像을 合쳤음으로 主佛 毘盧遮那, 右側이 毘盧·文殊·觀音 左側이 地藏·普賢·法起로서 毘盧遮那佛이 2具가 안치되어 關係에 어긋남을 느낀다.

(8) 八相殿(捌相殿)

8相이라 함은 佛菩薩이 이 世上에 出現하여 衆生을 제도하려고 一生 동안에 나타내어 보이는 8種의 相이며⁽²²⁾ 여러 學說의 8相의 種類中 그 하나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兜率來儀相
2. 毘盧降生相
3. 四門遊觀相
4. 踰城出家相
5. 雪山修道相
6. 樹下降魔相
7. 鹿苑轉法輪相
8. 雙林涅槃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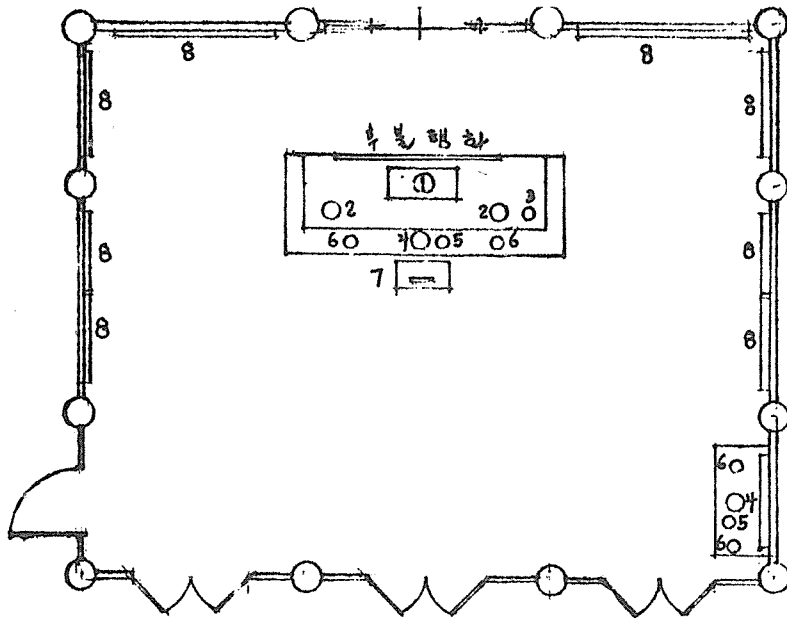
八相殿은 八相을 상징하는 佛殿이라 하겠다. 應眞殿이 없는 寺刹에 있어서는 八相殿을 靈山殿이라 하고 있다. (例, 梁山 通道寺) 法住寺 捌相殿은 8相幀畫와 五百羅漢이 모셔져 있으므로 8相殿과 五百聖衆殿을 겸하고 있으므로 건물도 四角 5層塔形의 特殊例이다.

○建築構造: 正面 3間(8.1m), 側面 2間(5.2m) 程度의 맞배 또는 八作지붕이며 柱心包 또는 翼工의 경우가 많으며 室内나무리 및 出入門等 一般寺刹 佛殿形式에 準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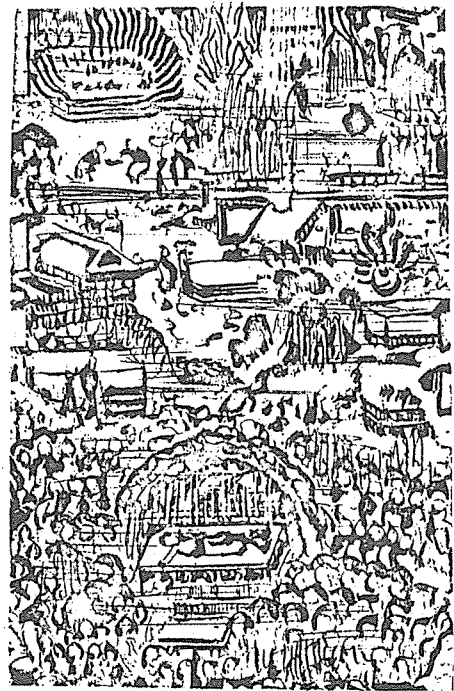
○佛壇配置: 大雄殿에 準하여 主佛壇을 설치하고 釋迦三尊佛(左補處 羯羅菩薩 右補處 彌勒菩薩)⁽⁵⁷⁾을 안치하되 梵魚寺는 左右補處로서 觀音大勢至를 안치하고 있다. 主佛壇 殘餘壁體에는 8種의 8相 幀畫를 揭示하되 幀畫 앞에는 연속된 긴 副祭壇을 간이하게 설치하기도 하며 (例, 梵魚寺) 또는 없는 경우도 있다. 主佛壇의 佛具와 其他는 一般에 準한다. 그리고 八相殿의 詳細는 (第 11圖) 参照할 것.

(6) 李喜秀, 韓國佛敎(서울: 佛書普及社 1971) (22) 운허용하, 불교사건(서울, 불교서적센터 1971) p899

(57) 張敬浩, 불사독송집(서울, 佛敎普及社 1973) p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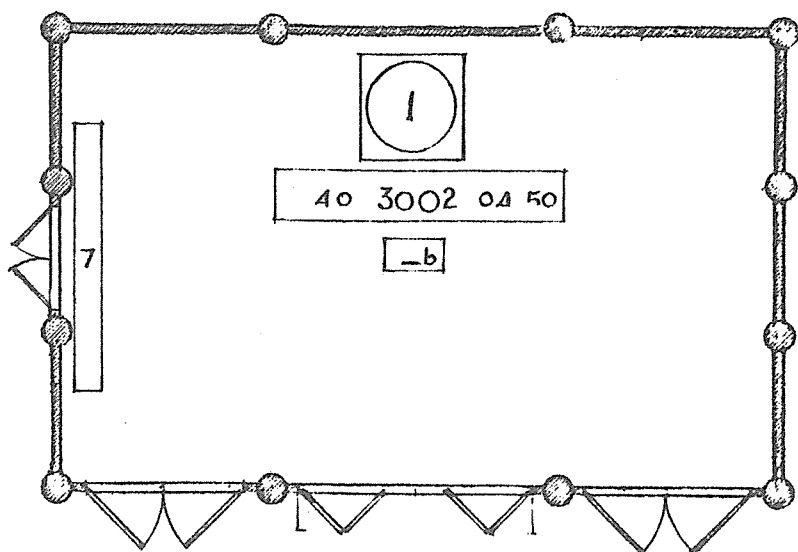


双溪寺 八相殿 佛壇配置図



八相幀画

第11図 八相殿



通度寺 彌勒殿 佛壇配置圖

1. 彌勒菩薩
2. 香 爐
3. 茶 器
4. 燭
5. 木 鐸
6. 喜捨函
7. 掛 佛

(9) 彌勒殿 (龍華殿)

四部阿含經, 瑜伽論, 彌勒上下生經 등을 근거로 한彌勒佛은 56億7千萬年後에 龍華世界에 再現한다는 未來佛이며, 미륵佛을 信仰하면은 死後 도솔천(兜率天) 또는 龍華世界에 태어나 罪業이 消滅되고 福德이 成就된다고 한다.⁽⁶⁾

彌勒佛은 立像으로 屋外에 設置된 例가 많으나 彌勒佛像으로 室內에 安置한 佛殿이 彌勒殿이다. 彌勒菩薩은 法起菩薩이라고도 한다.

○建築構造: 通度寺의 彌勒殿은 正面 3間(9.5m), 側面 3間(7.2m), 面積 68.4m²(20.7坪)이며 外 2出目 內 3出目 多包 맞배지붕이며, 그외의 例에 있어서도 大体로 佛殿이 欸을 第 2.2表를 通하여 알 수 있다. 室內 마감은 바닥을 塼으로 깔고 반자를 높이한 例를 많이 볼 수 있다. 但, 通度寺는 바닥이 돛자리(다다미)이다.

○佛壇配置: 一般的으로 補處佛이 없는 彌勒單佛像을 主佛壇에 설치하되 石造立像으로 한 例가 많다. (例, 서울 奉元寺) 室內에도 副祭壇 幀面 등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釜山 梵魚寺 彌勒殿은 左側壁에 부처서 靈壇이 配置되어 있다. (彌勒殿配置 第89圖 参照) 彌勒은 半跏趺座像인 例도 많이 볼 수 있다. (例 国宝 493号, 485号, 494号)⁽⁶³⁾

(10) 其他佛殿

§文殊殿(寒山殿): 文殊師利菩薩을 主佛로 안치한 佛殿이다. 妙吉祥, 妙音, 普現如來 등으로도 불리우며 智慧와 戒律의 상징으로 본다.⁽²¹⁾ 佛像의 模樣은 오른손에 智慧를 나타내는 갈을 들고 왼손에는 청련화를 든 結迦趺座像 또는 獅子를 타고 있는 像들이 많다. 眷屬으로 5童子 또는 8童子像 등이 있으며 中國 三聖中 한사람인

寒山에 文殊의 再現이라 하여 文殊殿을 寒山殿이라고도 한다. (例 聞慶 金龍寺) 韓國 寺刹中에 文殊殿의 數는 極히 적으며 建築樣式 其他 一般 佛殿에 準한다.

§覺皇殿: 求禮 華嚴寺에 있는 特殊名稱의 佛殿이며 毘盧遮那佛, 阿彌陀佛, 藥師佛의 三尊佛이 안치되고 그 사이사이에 文殊·普賢·觀音·勢至의 四補處 菩薩立像이 안치되어 있다. 現 大雄殿에는 毘盧遮那三尊佛이 있음으로 大雄殿은 大寂光殿의 役割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正面 7間 側面 5間 內外 2出目 5包作 多包重層 8作지붕의 한국 최대의 이 佛殿은 肅宗 29年(A.D. 1703) 重創이며 원래는 靑紫石에 刻한 華嚴經本을 四面壁에 장식했었다.⁽⁵⁹⁾

§須摩提殿: 達城 桐華寺內의 特殊佛殿으로서 現地 僧侶의 말에 따르면 印度佛像을 安置한 佛殿이라 하고 있는데 正面 1間 側面 2間의 이 佛殿은 극락전 右後方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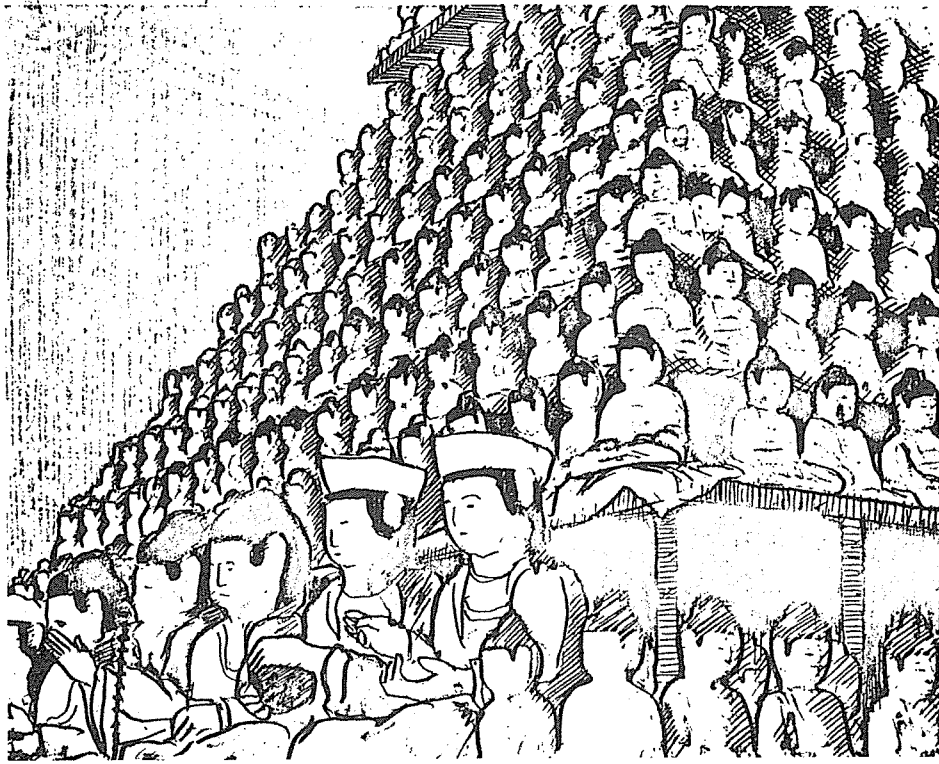
須摩提는 阿彌陀佛이 있는 極樂을 의미함으로 이 寺刹에 極樂殿을 들을 설치할 수 없어서 그중 하나를 須摩提殿이라 하지않았나 생각된다.

§五百聖衆殿: 釋尊의 弟子 500羅漢을 모신 佛殿이며, 16羅漢이 앞줄에 안치하고 그보다 작은 佛像인 500 羅漢을 뒷줄로 階段式 佛壇을 꾸며서 안치한 例를 많이 볼 수 있다. (例 長湍 華藏寺 庇眞殿) (第13圖)는 500羅漢像이 安置된 柢林寺의 例이다. 따라서, 五百聖衆殿은 應眞殿의 一種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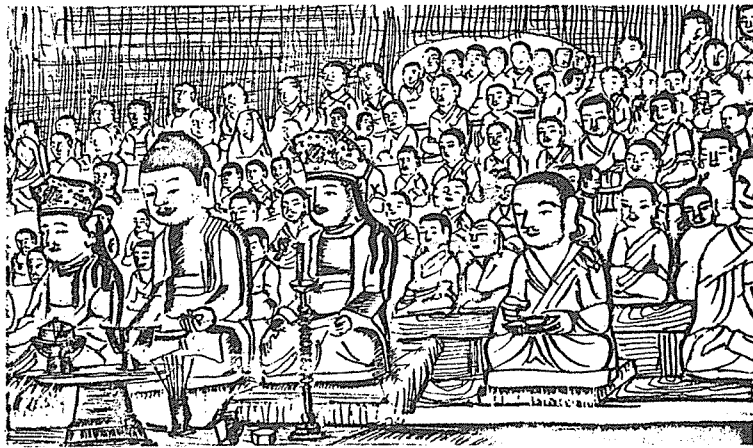
§千佛殿: 釋尊의 弟子 千羅漢像이 安置된 佛殿임으로 五百聖衆殿과 아울러 一種의 應眞殿이라 할 수 있다. (第13圖)는 華嚴寺 9層庵의 千佛像이다.

其他 水滸洞 華溪寺에는 千佛五百聖殿이 있는데 現在 實際佛像數는 그러하지 못하다.

(6) 李喜秀, 前掲書 p118 (21) 吉田龍英, 佛像解說圖繪(東京, 三省堂 1942) p115 (22) 윤허용하, 前掲書 p487
 (59) 姜奉辰, 大韓建築學會誌 28号(서울, 1968. 6) p59 (63) 문화재보존위, 국보도록 제 3집(서울, 문교부 1962) 해설p8



華嚴寺 九層庵의 千佛像



祇林寺의 五百羅漢

第13圖 千佛殿 및 五百羅漢殿